

HONG KONG LINER



홍콩의 최근 IT 산업 발전 현황 및 대만구 시장의 기회 소개하는 만찬 리셉션 서울에서 개최



(좌측부터) 원섬 아우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수석대표, 팡쿤 주한중국대사관 대리대사, 릴리안 청 혁신과학기술산업부 부장관, 메이시 첸 웨강아오 대만구 발전 본부장

홍콩경제무역대표부는 8월 28일 서울에서 홍콩의 최근 혁신기술 현황과 광둥-홍콩-마카오 웨강아오 대만구를 향한 관문으로서 홍콩을 활용한 기회에 대해 공유하고자 각계각층의 내빈 250여명을 대상으로 만찬 리셉션을 개최하였다.

원섬 아우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수석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홍콩과 한국은 강력한 유대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강조하였다.

아우 수석대표는 “2023년 한국은 홍콩의 여섯 번째로 큰 상품 교역 파트너였고, 홍콩은 한국의 열 번째로 큰 교역 파트너이자 다섯 번째로 큰 수출시장이었다. 2024년 상반기에는 25만명이 넘는 홍콩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했다. 동 기간 동안 42만여명의 한국 관광객이 홍콩을 찾았고, 이는 연간 270% 증가한 수치이다”라고 밝혔다.

메이시 첸 웨강아오 대만구 발전 본부장은 리셉션에서 ‘홍콩 - 웨강아오 대만구 지역의 슈퍼 커넥터이자 고부가가치 창출자’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첸 본부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대만구 지역의 유

망한 비즈니스 기회를 소개하며, 한국의 인재와 기업들이 ‘슈퍼 커넥터’이자 ‘고부가가치 창출자’로서 홍콩의 강점을 활용하여 홍콩을 통해 대만구 지역과 중국 본토의 거대한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릴리안 청 혁신과학기술산업부 부장관은 ‘홍콩 - 혁신과 기술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통해 “홍콩은 현재 기회가 풍부한 IT 산업 발전의 황금기를 맞이

하고 있다. 새로운 IT 산업 시스템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지금이 홍콩의 IT 산업에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이다. 홍콩은 정부, 산업계, 학계, 연구 및 투자 부문 간의 효율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강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함께 모여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건실한 기술 및 스타트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내빈 250여명이 참석한 만찬 리셉션

홍콩 글로벌 인재 유치 제도 설명회 서울에서 개최



메이시 쉐 웨강아오 대만구 발전 본부장(좌측에서 두 번째), 릴리안 청 혁신과학기술산업부 부장관(좌측에서 세 번째), 원섬 아우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수석대표(중앙), 앤서니 라우 홍콩 인재유치사무소장(우측에서 두 번째), 금재연 로버스트 자산운용 글로벌마케팅팀 팀장

홍콩경제무역대표부는 8월 29일 서울에서 광둥-홍콩-마카오 웨강아오 대만구를 향한 관문으로서 홍콩에서의 다양한 잠재적 기회와 더불어, 인재 허브로서의 홍콩의 강점을 홍보하는 오찬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하였다.

원섬 아우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수석대표는 오찬에서 홍콩에는 활기차고 활발한 한인 커뮤니티가 있으며, 한국 학생들은 홍콩의 대학교육위원회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가장 큰 해외 유학생 그룹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우 수석대표는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인프라와 교육에 투자하고 혁신을 지원하며 전도유망한

인재들을 위한 역동적이고 국제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이시 쉐 웨강아오 대만구 발전 본부장은 오찬 행사에서 대만구 지역의 발전이 한국 인재와 기업들에게 가져올 무한한 기회와 혜택에 대해 소개하였다.

첸 본부장은 “대만구 지역은 재능 있는 인재들에게 풍부한 기회와 유망한 커리어 패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릴리안 청 혁신과학기술산업부 부장관은 오찬 연설을 통해 혁신기술



동 설명회에는 인사관리 전문업체, 고등교육기관에서의 대표 참석자와 더불어, 다양한 직군의 직장인과 학생들이 참석함

분야의 인재를 끌어들이는 홍콩의 매력을 소개하였다. 청 부장관은 홍콩이 자체적인 IT 생태계를 구축하여 현지 및 해외 IT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인재를 통해 기술을 홍보하며, 기술을 통해 산업을 선도하고 산업을 통해 인재를 유치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 앤서니 라우 홍콩 인재유치사무소장은 홍콩의 독특한 장점과 막대한 기회를 강조하고 전 세계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홍콩에서 자기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인재 유치 제도를 소개하였다.

홍콩 혁신과학기술산업부 장관관 및 정치체제·내륙사무국 웨강아오 대만구 발전 본부장의 방한 주요 내용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중앙)과의 면담

릴리안 청 혁신과학기술산업부 장관관과 메이시 첸 웨강아오 대만구 발전 본부장은 홍콩의 최근 발전 동향, 특히 IT 산업과 대만구 지역의 발전으로부터 창출되는 다양한 기회에 대해 소개하고자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서울과 경기도를 방문하였다.

방문단은 8월 28일 홍콩 만찬 리셉션과 8월 29일 오찬 네트워킹 행사 이외에도, 한국 정부인사와 반도체, 바이오테크, 벤처 캐피탈리스트, 신에너지 분야의 전략적 혁신기술 기업, 인공지능과 데이터 사이언스에 특화된 스타트업들을 방문하였으며, 한국의 최근 IT 산업 발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다양한 비즈니스 협회 및 단체 대표와 의견을 교환하였다.

방문단은 한국 국내의 역사적 문화유산과 국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에 대해 학습하고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방문하였으며, 청와대 이외에도 서울시 정부가 조성하여 최근 개관한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도 방문하였다.



김기현 한국무역협회 국제협력본부 상무(중앙)와의 면담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과의 면담(위측 중앙)

Hong Kong Government Officials - Korea Medical Innovation Research Forum Digital Healthcare Cooperation Meeting

Aug. 27, 2024 (Tue)



임종윤 한국미래의료혁신연구회 공동대표(중앙)와의 면담

홍콩무역발전국 식품박람회 프로 및 식품박람회에 82개 한국 기업 및 단체 참여

무역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홍콩무역발전국(HKTDC) 주관 식품박람회 프로(PRO)와 홍콩 국제 차(茶) 박람회가 지난 8월 15일부터 17일 까지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와 동시에 8월 15일부터 19일 까지 식품박람회, 뷰티&웰니스 박람회, 홈 딜라이트 박람회가 일반인

을 대상으로 개최되었다. 해당 5개 행사에는 30개 국가 및 지역에서 약 1,860여개 전시업체가 참가하였다.

한국에서는 82개 기업 및 단체가 식품박람회 프로 및 일반인대상 식품박람회에 참가해 한국 식품을 홍보하였다.



한국 기업들 대상으로 홍콩을 최상의 물류 허브로 홍보하는 세미나 개최

홍콩경제무역대표부는 홍콩무역발전국, 홍콩물류협회와 공동으로 6월 26일 서울에서 네트워킹 세미나를 개최하여 아시아 최고의 물류 중심지이자 중국 본토와 전 세계를 잇는 무역 관문으로서 홍콩의 강점을 홍보하였다.

레오 제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수석대표 권한대행은 홍콩과 한국이 강력한 무역 파트너십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히며, 2023년 한국은 홍콩의 여섯 번째로 큰 상품 교역 파트너였고, 홍콩은 한국의 열 번째로 큰 교역 파트너이자 다섯 번째로 큰 수출시장이었음을 강조하였다. 레오 수석대표 권한대행은 “물류의 세계에는 연결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홍콩과 한국은 세계적인 항공 및 해상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강력한 교통 연결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레오 수석대표 권한대행은 홍콩은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지역의 관문에 전략적으로 위치하고 있어, 한국 제품들이 인구 8,600만 명의 거대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통로라고 덧붙였다.

‘성장을 위한 기회: 홍콩-한국 물류 파트너십 강화’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는 물류업계 관계자들과 국내 각계 기업 임원들을 비롯하여 서울을 방문 중인 홍콩물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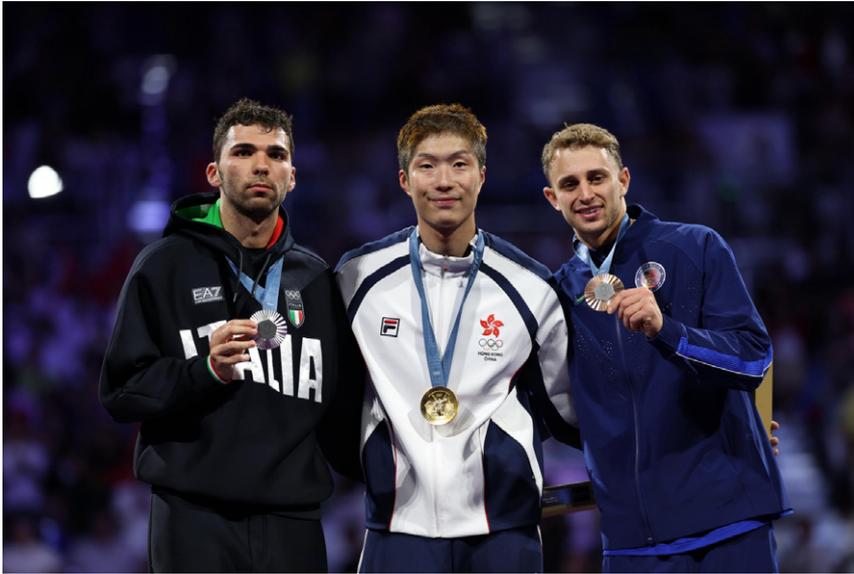
네트워킹 세미나에서 연설 중인 레오 제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수석대표 권한대행



레오 제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수석대표 권한대행(우측에서 두 번째), 빌리 리 홍콩무역발전국 한국지부장(좌측에서 첫 번째), 엘사 위엔 홍콩물류협회 회장(중앙), 그 외 홍콩 및 한국 물류 업계 인사

홍콩 선수들,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역사적인 성적 기록

(중) 홍콩 스포츠 연맹 올림픽 부원회에서 사진 제공



청카롱 선수(중앙), 남자 플뢰레 개인전에서 금메달 획득.



비비안 콩 만 와이 선수, 펜싱 여자 에페 개인전에서 금메달 획득



시오반 허헤이 선수, 여자 100m 자유형, 여자 200m 자유형에서 각각 동메달 획득

홍콩 선수들은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4개 종목에서 금메달 2개와 동메달 2개를 차지하며 역사적인 성적을 거두었다. 홍콩이 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2개 이상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홍콩 차이나 대표팀은 메달 순위표에서 200여개팀 중 37위를 기록하며 역대 가장 성공적인 성적으로 올림픽을 마무리하였다.

자이언트 판다 쌍둥이 출산과 더불어, 자이언트 판다 한 쌍 추가로 받을 예정



자이언트 판다 잉잉, 사진: 오션파크 제공

홍콩 오션파크의 자이언트 판다 잉잉은 19번째 생일을 하루 앞둔 지난 8월 15일 쌍둥이를 출산했다. 이로써 잉잉은 첫 출산에 성공한 세계 최고령 자이언트 판다로 기록되었다.

이와 더불어 7월 1일에 발표된 바와 같이, 홍콩특별행정구는 중앙정부로부터 자이언트 판다 한 쌍을 추가로 받을 예정이며, 새로운 자이언트 판다들은 9월 26일 홍콩에 도착하여 오션 파크에 머물게 될 것이다.

오션 파크는 세계적인 동물 보호 및 보존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오션 파크는 특히 자이언트 판다와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사육 판다 중에서 최고령 자이언트 판다 지아 지아와 최고령 수컷 판다 안안을 보유하고 있던 곳으로 자이언트 판다 케어와 관련하여 세계 기록 두 개를 남겼다.



홍콩에서 출산된 첫 자이언트 판다 쌍둥이 (왼쪽 남성, 오른쪽 여성), 사진: 오션파크 제공

홍콩, 2024년 세계경쟁력연감에서 5위로 순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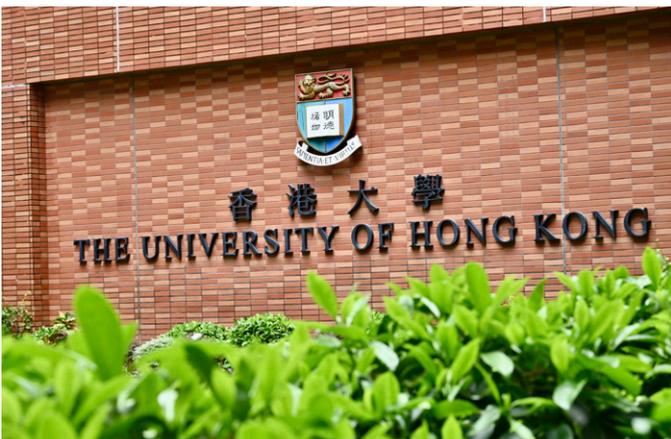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최신 2024년 세계경쟁력연감에서 홍콩의 순위는 두 계단 상승한 세계 5위를 기록하였다.

2024년 세계경쟁력연감의 4 가지 경쟁력 부문 중 '비즈니스 효율성'과 '인프라' 부문에서 홍콩의 순위가 눈에 띄게 상승하여 전 세계 10위권 내에 진입하였다. '정부 효율성' 부문에서도 홍콩은 3위 안에 들었다. '경제 성과' 부문에서도 2023년 경제 회복세를 반영

하여 순위가 크게 향상되었다. 세부 항목에서는 홍콩은 '국제 무역'과 '비즈니스 법률'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 '조세 정책', '국제 투자', '기본 인프라', '금융' 및 '교육' 부문에서도 세계 상위 5위권 안에 들었다.

2024년 세계경쟁력연감에서는 싱가포르가 종합 1위를 차지하였고, 스위스, 덴마크, 아일랜드, 홍콩이 그 뒤를 이었다.

홍콩대학교육위원회(University Grants Committee, UGC) 지원 대학, 2025년 QS 세계대학순위에서 높은 평가 받아



17위를 차지한 홍콩 대학교

홍콩의 대학들은 국제 고등교육기관인 QS가 지난 6월에 발표한 2025년 세계대학순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홍콩의 6개 대학 순위가 상승했으며, 그 중 5개 대학이 세계 100위권 내의 순위를 유지하였다.

세계 100대 홍콩 대학 순위

순위	대학명
17	홍콩 대학교
36	홍콩 중문대학교
47	홍콩 과학기술대학교
57	홍콩 이공대학교
62	홍콩 시립대학교

출처: 6월 발표 2025년 QS 세계대학순위

비중국계 홍콩 영주권자 대상 중국 본토 여행을 위한 카드형 허가증 발급

7월 1일에 발표된 바와 같이, 비중국계 홍콩 영주권자는 중국 본토 입국을 위해 별도의 비자를 신청할 필요 없이 중국 본토를 복수로 여행할 수 있는(1회 방문당 체류 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카드형 허가증(홍콩 및 마카오 주민(비중국 시민) 대상)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중국 출입국관리국은 7월 10일부터 해당 카드의 발급을 개시하였다. 카드 신청은 홍콩 주재 중국여행사총사유한공사를 통해 가능하다.

SPOTLIGHT HONG KONG



‘100% 도라에몽 & 프렌즈’ 투어 홍콩에서 진행

세계 최대 규모의 도라에몽 전시회 ‘100% 도라에몽 & 프렌즈’가 7월 13일부터 18일까지 홍콩에서 개최되었다. 도라에몽과 친구들의 실물 크기 조형물 130여점, 60점이 넘는 원본 그림과 복제품, 특별 영상 등이 전시되었다. K11 뮤제아(Musea) 유료 전시 이외에도, K11 뮤제아 1층과 침사추이 하버프론트 스타의 거리 주변에서 열리는 무료 입장 구역도 운영되었다.



홍콩특별행정구정부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전화 : 02-736-0199 (서울 연락사무소) 이메일 : seoul_enquiry@hketoty.gov.hk

홍콩특별행정구정부 포털사이트 www.gov.hk
정부공보처 제공 뉴스 www.news.gov.hk
브랜드홍콩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brandhk.isd
홍콩경제무역대표부 www.hketoty.gov.hk/korea